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동향

홍육현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국에서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국내에서 경쟁력있는 분과 학문으로 성장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학문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국외의 여러 정보서비스업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그리고 한국의 해외 진출 기업과 정보제공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역연구자는 국제학술지 기고를 통해 권위 있는 연구자로서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를 국제학술지로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지역연구의 정부 및 외부 지원은 국제저명학술지 기고논문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국내 대학은 지역 정보 처리와 가설 검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학적 연구방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해외 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중남미 지역연구, 한국의 지역연구

I. 서론: 지역연구는 신뢰받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2011년 중반 브라질 상파울루 주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파견 직원들에게 현지의 기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는가를 물어보았다. 노동법이나 세제와 관련된 복잡한 정보는 현지의 전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일반 정보는 주로 선임자들의 체험을 활용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대학에 설치된 여러 라틴아메리카 연구소들이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서비스를 주요 연구 사업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해외 진출업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3편의 논문이 눈에 띈다. 김달용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 관한 일고”(1989), 광재성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동향과 발전과제”(2002) 그리고 이성형의 “한국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2009) 등이다.

이들 논문의 진단은 다 같이 당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가 실용성이나 학술성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라틴아메리카 연구 동향을 검토한 김달용에 의하면, 다수의 연구물은 현상 소개 수준이나 군부통치나 민주화 등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가설검증이 시도되는 본격적 지역연구의 틀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달용, 1989).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가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외관계 개선과 정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시각, 즉 한국적 시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동향을 검토한 논문에서 광재성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광재성, 2002).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특징으로 대학원 지역연구 과정의 실종, 대학의 어학교육과 지역학과의 연계 미진, 학술 활동 지원 축소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단언했다. 광재성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학제적 연구의 추구, 대학 및 대학원에 지역학 연구 인력 확대,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저술서 출간, 지역연구에 대한 정부 및 외부 지원 강화,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의 특화 및 통합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단행본을 중심으로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동향을 검토한 이성형은 지역연구가 심화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이성형, 2009). 그는 우리나라에서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1990년대 이후 연구의 양과 질 면에서 발전적 과정을 거쳤지만, 심화된 지역연구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지역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연구 방법론의 개발, 외국어로 된 논문과 연구서의 출간, 연구자의 재생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지역연구자와 비교정치학의 협력) 등을 미래의 과제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외 지역연구 전반에 대한 학술성 및 실용성에 대한 평가도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 대한 진단과 크게 다르진 않다(김진기, 1994; 조기숙, 1994; 서재만, 1998; 신윤환, 1998; 전성홍, 2002; 정해조, 2007; 김경일, 2009; 전제성, 2009). 무엇보다 지역연구의 정체성과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연구 환경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해외 지역연구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역연구가 활기를 띠었지

만, 어떠한 주제와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며, 전통적 분과학문과 어떻게 융합되어야 할지, 또한 어떠한 연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실용적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다.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와 라틴아메리카 연계전공 소개는 이 지역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은 브릭스(BRICS)의 일원인 브라질로 쏠리고 있습니다. … 칠레와 페루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 글로벌 시대에 라틴아메리카는 더 이상 ‘미지의 땅(terra incognita)’이 될 수 없습니다. 서어서문학과는 이러한 폭발적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라틴아메리카 연계전공’을 마련했습니다. … 연계전공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첫째, 학제적 접근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둘째, 자신의 전공 분야를 지역적 관점과 접목시키는 전문가로 훈련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공간 중심적 사고를 배양하여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감수성을 높입니다. … 세계의 라틴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스페인어 상용인구도 5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30년경에는 1억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포르투갈어 인구는 브라질만 2억 명이 넘습니다. 스페인어와 포어는 사촌지간이니 하나를 배우면, 다른 하나는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라틴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2012).

둘째, 라틴아메리카는 학술적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가 높은 가설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이다(곽재성, 2002: 6). 세계 어느 지역도 이 지역에 비해 언어, 지리 및 사회 면에서 동질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는 과거사 청산, 인권정치,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연금개혁, 사회정책, 민영화 실험 등), 에너지와 환경보호 등의 경험 등에서 우리의 좌표 설정에 반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틴아메리카는 가설검증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고,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가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은 학문영역으로 평가 받고 또한 정체성이나 방법론 확립의 요구를 받

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학문적 및 실용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도 지식 상품의 하나다. 지역연구 상품을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이 상품의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지역연구 수요자 또는 독자는 한국인만이 아닌 세계인으로 확대되었다. 선호하는 상품 역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즉 세계 표준의 상품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지역연구 수요자라 할지라도 그가 선호하는 지역연구 제품은 세계 표준을 갖춘 저작이다.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진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인력의 경우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학 졸업생일 것이다.

세계 표준을 갖춘 지역연구일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지역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세계적 표준을 갖춘 저작물과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앞으로 경쟁력이 높은 학문분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첫째, 대학의 부설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현지의 여러 정보서비스업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의 연구소들은 우선 한국의 해외 진출 기업과 정보제공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자는 국제학술지 기고를 통해 권위 있는 연구자로서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를 국제학술지로 격상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연구의 정부 및 외부지원은 국제학술지급 기고논문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정보 처리와 과학적 학문연구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과학적 연구 방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도 이제 더 이상의 보호학문이 아니며, 국내외 다른 전통학문과 인접학문에 비해 높은 학문적 경쟁력이 있다는 독자들의 신뢰를 획득해야 할 시점에 와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연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는 독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충

족시키는가 여부이다.

주요 독자로는 실용적 독자와 학문적 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실용적 독자로 라틴아메리카 진출기업이나 취업 희망자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정확한 현지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학문적 독자는 전통적 분과학문의 사회과학자와 이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질문과 권위 있는 가설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역연구가 정확한 현상 정보와 가치 있는 가설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신뢰를 독자로부터 받아야 지역학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독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역연구 활동은 지역연구자들만의 잔치에 불과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논문 추세 및 연구 환경을 점검해 본 뒤, 이어서 앞으로 지역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 한국의 지역연구 논문도 여타 분과학문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학술 제품이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국내의 제품 생산이 활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동향

이 글에서는 지역연구를 “일정 지역에 관한 연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서재만, 1998: 156). 지역연구자 또는 지역전문가란 모국 이외의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바치는 사람을 지칭한다(Lambert, 1990: 712). 지역연구를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예로는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연구협회(LASA: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가 있다. LASA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학문적 또는 다른 직업적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학회는 학회의 역할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미주 전역의 사람들에 대한 지적 토론, 연구 및 교육을 진작시키며…”로 정하고 있다(LASA, 2012). 이 글에서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및 문학 전공자도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자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 또는 문학전공자가 사회과학 주제 연구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연구 또는 지역학을 이와 같이 단순하게 정의할 경우 이에 대한 정체성과 방법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은 다양하여 이를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소모적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역연구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 수준으로 평가하면 쉽게 정리될 수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지역연구는 대상 독자들의 지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독자가 정확한 현황 정보를 원하면 연구 결과물도 이에 부응해야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 독자가 권위 있는 가설을 원하면 연구 결과물도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학제적이고 독특한 연구방법을 사용해도 독자들이 외면하는 결과물은 좋은 연구가 될 수 없다. 최적의 연구방법은 제기된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연구가, 특히 과학적 지식을 목표로 하는 학술적 논문의 경우, 국제학술지에 실릴 수 있다면 정체성과 방법론 모두 충족된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1. 연구 인력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자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 등록된 회원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 현재 약 100여 명으로 이 중 20여 명이 스페인어 또는 문학, 포르투갈어 또는 문학을 전공했다.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또는 문학 전공자들은 연구영역을 넓혀 관심 지역의 인문사회 분야 주제 연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80여 명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분과학문을 다양하게 전공했다. 이 중에서 정치학 학위를 가진 전공자가 약 25명으로 가장 많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자 전체 수는 10여 년 전의 120여 명보다 줄어들었지만, 언어 및 문학 이외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공자 수는 늘어났다.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언어 및 문학 전공자 60여 명, 언어 및 문학 이외의 인문사회과학 전공자가 60여 명이었다(곽재성, 2002). 사회과학 분야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은 대부분 1990년 초·중반에 학계에 진입했다(이성형, 2009).

활동 중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전공 학문분야로는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및 정치학 등이다. 관심 지

역도 브라질,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학 분야를 빼고는 각 분야에 소수의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연구 인력 면에서 여성 연구자의 수와 활동이 활발해졌다. 현재 약 15명의 여성 연구자가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다른 지역연구 분야에 비해 여성 연구자가 많은 편이다. 이순주는 2003년에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을 저술하여 지역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성형, 2009).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은 국제학술지급 논문을 쓸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기고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박윤주가 “Negotiating Neoliberal Multiculturalism: Mapuche Workers in the Chilean State”를 2007년 *Social Forces*에, 강정원이 “Conceptualizing Development in the Peruvian Andes: The Case of Compañía Minera Antamina”를 2012년 *Human Organization*에 기고한 바 있다.

2. 연구소 및 연구전문 인력

어학을 제외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자의 약 30%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전문 인력이 여러 명 있는 연구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그리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등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되었고, 신홍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에 5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주요 연구 목표는 중남미지역 대외경제관계 현황, 한국과의 경제관계 및 중남미지역 경제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표방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원은 10여 명의 지역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해외연구지원을 받은 이후 중남미 지역의 인권 문제, 한국교민 실태,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에 사업 정보 제공, 중남미 지역 자료은행 구축, 지역전문가 양성, 학술적 네트워크 사업,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연구사업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도 인문한국의 지원을 받아 ‘21세기 라틴아메리카와 트랜스 모더니티’를 기치로 12명의 전문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형성, 전환 대안을 제시하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활동 중이며, 기존 라틴아메리카 연구와 시각을 달리하여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전문가 양성, 자료은행,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구축, 연구과제 수행 등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를 보면, ①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라틴아메리카 대항 헤게모니 운동과 국가개혁, ② 안데스 원주민 문명의 세계관(Sumak Kawsay)과 『중용(中庸)』의 성(誠)론 간의 상호문화적 해석: 이론적 검토와 정치적 실천에 대한 연구, ③ 세계체제와 탈식민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라틴아메리카 이후’, ④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전망, ⑤ 탈민족주의 시대의 라티노 정체성 연구 등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7년까지 융합녹색기술을 개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생명과학기술(BT),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 등을 제공하고, 중남미에서는 식물자원과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센터는 현재 2명의 사회과학 분야 전문 연구원이 일하고 있으며 학제 간 융합연구, 후속 연구자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학문 후속 세대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대학교에서 스페인어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600여 명의 학생이 매년 입학하고 있다. 포르투갈어 학과는 2개교에서 매년 1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어학과는 대부분 학제적 교육을 표방하고 중남미 지역학을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거나 연계전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학과는 모두 원어민 교수를 두고 학생들의 언어소통 능력을 높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가 가능한 대학원 과정은 7개 대학 정도에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원이 어학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학 과목을 추가하고 있다. 국제대학원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교육과정이 개설된 곳은 몇 개에

불과하다. 전통적 분과학과에서 라틴아메리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곳은 거의 없는 편이다. 라틴아메리카 정치 관련 교과목은 대부분의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교과목에서 빠져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곳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도에 불과하다.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인력 공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이유로는 우선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 지역을 공부하는 인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할 수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 취업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 지역의 연구 인력이 많아지지 않는 한 이유다. 국외에서 이 지역을 전공하려는 유학생도 1990년대나 2000년대에 비해 줄어들었다.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수요를 보면, 대기업과 정부 부문의 일자리는 물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고급의 지역전문가 수요도 소수에 불과하다. 단, 중소기업의 현지 인력 수요는 풍부한 편이지만, 관련 지역 전공자가 기피하고 있어 수급의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4. 연구논문

라틴아메리카 지역 및 개별 국가에 대한 학술논문 수는, 제목 및 주제어 기준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총 2,400여 편이 발표되었다. 정부 및 정부 지원 간행물은 600여 편이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에 관한 학술논문이 370여 편으로 가장 많고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연구는 600여 편이다(표 1 참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발표 논문 수는 중국, 미국, 아시아 관련 논문 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이다(표 2 참조).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관련 학술논문 수와 멕시코의 그것은 비슷한 수준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정기 간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추이를 보면, 2000년대에 급격히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1991~95)에 연평균 약 11편이고 1990년대 후반에 약 19편이었던 것이 2000년대 초반에는 약 52편, 2000년대 후반에는 약 53편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브라질 등 개별 국가에 관한 논문도 크게 증가했다(표 3 참조).

표 1 정기 간행 학술지 및 정부 지원 간행물에 발표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및 국가별 연평균 발표 논문 편수(제목 및 주제어 기준, 1971~2012)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쿠바	라틴 아메리카	기타 국가	전체
전체 ¹⁾	657	510	296	257	240	207	684	1,815	3,982
전자저널 ²⁾	373	281	197	65	134	124	603	1,195	2,370
국가지식 ³⁾	120	113	52	21	45	10	29	242	603
기타	164	116	47	171	61	73	52	378	1,009

주: 1) 전체는 전자저널, 전자책, 웹DB, 참고자료·사전 및 정부 지원 간행물에 실린 모든 기사 및 논문을 포함.

2) 전자저널은 정기적으로 간행된 학술지임.

3) 국가지식은 정부 또는 정부지원 기관에서 발행된 간행물임.

출처: DBpia, 2012. 10. 8. 현재 검색된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표 2 정기 간행 학술지 및 정부 지원 간행물에 발표된 지역 및 국가별 연평균 발표 논문 편수(주제어 기준, 1971~2012)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동남아	아시아	멕시코	라틴아메리카
전자저널 ¹⁾	28,173	17,114	319	357	15,079	373	608
국가지식 ²⁾	2,887	4,950	138	141	1,007	120	29

주: 1) 전자저널은 정기적으로 간행된 학술지임.

2) 국가지식은 정부 또는 정부지원 기관에서 발행된 간행물임.

출처: DBpia, 2012. 10. 8. 현재 검색된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연구 분야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 수가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에 비해 훨씬 많이 저술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사회과학 분야 논문이 전체 정기 간행 학술지 논문에서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참조). 사회과학 내에서는 지리 및 지역학 논문이 약 3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회 및 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경제 및 경영학, 종교학 및 신학, 사회과학 일반 등의 순으로 많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쿠바 등에 관해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논문의 대부분은 주로 2000년 이후 발표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대표적 학술지는 1988년에 창간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의 『라틴아메리카연구』이다.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 수는 사회과학 분야 논문의 90%에 육박하고 있다(표 5 참조). 그 외의 학술지

표 3 정기 간행 학술지에 발표된 제목 및 주제어별 연평균 발표 논문 편수(1971~2012)

	라틴아메리카 ¹⁾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기타 국가	전체 편수
1971~75	0.4	0.4	0.4	0.2	0.4	0.8	13
1976~80	1.4	1.2	2.4	0.2	0.8	1.4	37
1981~85	2.6	1.2	1.6	0.8	0.4	1.8	42
1986~90	9	2.2	2.2	1.4	0.8	12.6	141
1991~95	10.6	9.6	6	2.4	1.8	16	232
1996~00	18.8	11.6	5.6	3.4	3.4	11.6	272
2000~05	51.6	17.8	12.8	7.4	11.8	19.6	605
2006~10	53.4	24.8	20.6	9.4	16.6	37.2	810
2011	47	20	14	3	8	37	129
2012	32	9	11	5	10	22	89
전체	818	373	283	134	198	160	2,370

주: 1)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를 제목 또는 주제어로 검색된 항목 모두 포함.

출처: DBpia, 2012. 10. 8. 현재 검색된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표 4 정기 간행 학술지 논문 제목 및 주제어를 기준으로 본 국별 및 학문분야별 논문 편수와 비중 (1971~2012)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쿠바	기타 국가	계
전체 논문 수	818	373	283	198	134	126	438	2,370
인문학(%)	18.3	19.6	17.0	14.1	17.2	27.0	23.5	19.4
사회과학(%)	77.1	60.6	61.8	56.1	59.0	62.7	56.8	65.4
행정학	0.4	1.3	2.8	3.0	3.0	0.8	1.8	1.5
지리/지역학	58.7	24.1	16.3	13.6	18.7	6.3	11.4	30.6
정치외교학	3.4	4.8	7.1	6.6	11.2	21.4	6.2	6.2
신문방송학	0.2	0.8	0.4	0.5	0.0	1.6	0.7	0.5
사회/사회복지학	5.0	11.0	11.0	9.1	8.2	23.0	15.3	10.0
법학	0.7	2.7	1.8	4.0	3.7	2.4	8.0	3.0
교육학	1.2	1.1	1.1	1.0	0.0	0.0	2.1	1.2
경제/경영학	2.6	8.6	9.5	14.6	3.7	0.8	2.1	5.2
민속학	0.0	0.5	0.0	0.0	0.0	0.0	0.0	0.1
문헌정보학	0.0	0.5	0.0	0.5	0.0	0.0	0.0	0.1
관광학	0.0	0.0	0.0	0.0	0.0	1.6	0.2	0.1
사회과학일반	4.9	5.1	12.0	3.0	10.4	4.8	9.1	6.7
기타 분야	4.5	19.8	21.2	29.8	23.9	10.3	19.6	15.2

출처: DBpia, 2012. 10. 8. 현재 검색된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표 5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 전체 논문 수와 『라틴아메리카연구』에 발표된 논문 편수
와 비중(주제어 기준, 1991~2012)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	칠레
전체 전자저널 논문 수(A)	565	352	250	186
사회과학 전자저널 논문 수(B)	480	223	158	107
라틴아메리카연구지 논문 수(C)	418	86	38	25
C/A(%)	74.0	24.4	15.2	13.4
C/B(%)	87.1	38.6	24.1	23.4

출처: DBpia, 2012. 10. 8. 현재 검색된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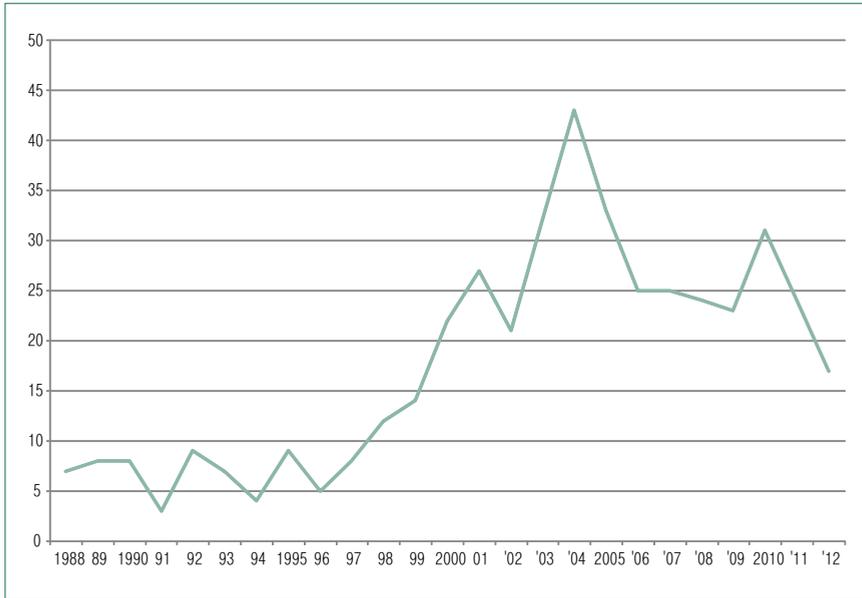
표 6 『라틴아메리카연구』에 발표된 국별 연평균 논문 편수(1991~2012)

	전체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기타
1991~1995	6.4	2.2	0.6	0.2	0	0	0.2	3.2
1996~2000	12.2	2.6	1.6	0.2	0	0	0	7.8
2001~2005	31.2	6.4	3	2	0.8	0.2	0.6	18.2
2006~2010	25.6	5.4	2.4	2.6	1.4	1.2	1	11.6
2011	24	2	0	0	0	1	0	21
2012	17	1	0	0	0	2	0	14
전체	418	86	38	25	11	10	9	239

출처: DBpia, 2012. 10. 8. 현재 검색된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의 『중남미연구』,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의 『포르투갈-브라질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원의 『이베로아메리카』,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세계지역학회의 『세계지역연구논총』 등이 있다. 이들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는 인정받았지만 국제학술지로 인정받은 것은 아직 없다. 『라틴아메리카연구』는 1997년부터 외국어 논문을 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인정받았다.

『라틴아메리카연구』에 발표된 논문 수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30편을 상회했다. 1991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약 400편의 논문 중에서 2001년에서 2012년까지 발표된 논문이 90% 이상일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논문 발표가 있었다(표 6 참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04년 43편을 정점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논문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출처: DBpia, 2012.10.8 현재 검색된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그림 1 『라틴아메리카연구』 발표된 연도별 발표 논문 편수(1988~2012)

도 후반에는 연평균 25편이 생산되면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그림 1 참조). 이 기간에 60 내지 80여 명의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했다고 보면, 일인당 0.3 내지 0.4편의 논문을 발표한 셈이다.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연구 주제는 정치경제에 편중되었지만(곽재성, 2002),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분산되었다. 1991년에서 2012년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관심을 끈 주제는 신자유주의이고 다음으로 노동, 민주화 등의 순이다(표 7 참조). 그 외 정당, 좌파, 마약, 물라, 차베스 등에 관한 논문들도 많아졌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관심 주제는 당시 국내의 다른 학문분과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주제들이었다.

표 7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 주제별 논문 편수(1991~2012)

제목 및 주제어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전체	라틴아메리카연구
신자유주의	44	34
노동	42	29
민주화	29	24
민주주의	22	17
선거	14	11
정당	11	10
차베스	11	8
경제개혁	8	7
좌파	7	3
마약	6	6
중속	6	2
권위주의	4	4
노동자당	4	3
물라	3	3
외채위기	3	2
포퓰리즘	3	2
군부독재	2	2

출처: DBpia, 2012. 10. 8. 현재 검색된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III. 남은 과제

지역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보편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지식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전통적 분과학문이 최고급의 지식, 즉 과학적 지식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과학적 지식은 특정 사회현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움직이는 원인을 찾아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노력이다. 개별 연구논문은 특정현상 Y의 모습만 그려낼 수도 있고, 특정현상 Y와 특정현상 X_1 간의, 또는 Y와 X_1, \dots, X_n 과의 관계를 탐구할 수도 있다. 후자일수록 고급의 과학적 지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지역학도 연구 내용 면에서 궁극적으로 전통적 분과학문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과학적 지식 탐구 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첫째, 2000년대를 거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

는 단계에 도달했지만, 아직 독자로부터 권위 있는 지식 추구자로 확고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동향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120여 명의 연구자가 『라틴아메리카연구』에 연평균 약 0.3편의 논문을 생산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를 주로 다루는 학술지가 4개 이상 더 있기 때문에, 인당 1편 이상 논문을 생산하는 셈이다. 논문의 내용도 199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현상 기술에서 가설 증명 단계로 이전했다. 이제는 지역연구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과학적 지식도 권위있게 생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현재 세계의 각종 라틴아메리카 지역 정보와 연구논문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때문에 세계의 독자들이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연구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해야 이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도 높은 연구라는 평가를 받는 지름길은 연구저작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등재되는 것이다.

지역연구의 정체성은 국제적인 사회과학 저널에 논문이 실림으로써 쉽게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연구가 서구의 시각이 아니라 한국적 시각이어야 비로소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무엇인지 애매하고 또한 독자의 신뢰를 얻는 데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연구 주제 선정에서 우리나라의 관심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과학적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은 자료 수집에서 분석까지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대학 연구소가 연구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비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학은 외국인으로서 분과학문이 추구하는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과 비용을 수반한다. 일부 대학 연구소는 정부의 지원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학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구소들이 체계적으로 필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연구소는 연구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 연구소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셋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자 협회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대한 발표의 장을 만들어주고, 연구 방향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

을 하고 있지만, 독자 확보에 정체성(停滯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로부터의 신뢰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아직 축적된 인용지수가 없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있다 해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적어도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과학적 지식 생산을 수행하는 학문 분과로 폭넓은 인정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첫째,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나 연구논문이 독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학술지, 사회과학 인용지수(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가 높은 저널에 논문이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라틴아메리카 연구논문도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표적 학술지인 『라틴아메리카연구』도 국제학술지로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연구재단은 사회과학 분야 학술 지원을 통해 국제학술지 기고를 장려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 자연과학이나 공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은 처음부터 국제저명학술지 발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 지역연구자들에 대한 학술 지원도 국제학술지 투고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소는 국내외 기업을 주요 독자 또는 고객으로 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라틴아메리카 연구소들의 대부분은 재정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원에 장기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은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 정보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소들은 그 활성화를 위해, 어렵지만 수입원을 창출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원이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두 군데 모두 자료 구축이나 인력 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보서비스업의 확대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지역연구가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용적 연구, 즉 기업이나 개인 독자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실용적 독자의 외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연구 졸업생들의 취업도 중장기적

으로 중요한 과제다. 지역전문가, 지역연구 실무자 및 지역학과 졸업생은 서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학과 졸업생의 일자리와 취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 부문 인력 수요를 보면, 대기업의 일자리 경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회가 꽤 많은 편이다. 지역학과 졸업자들은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지 파견인력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자리와 지역학 졸업생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산학(産學) 계약학과, 맞춤형 고급인력 연수, 현지 연수 실습, 초급 현지 파견인력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정책적 배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소는 대상 지역 또는 국가의 정보업체와 협력을 통해 국내 독자들이 축적된 자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 입장에서 해외 지역연구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필요한 자료, 즉 ‘1차 자료’를 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지역연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라틴아메리카연구소(Latin American Center)는 여러 각국의 통계 발간 기관과 제휴하여 *Statistical Abstract of Latin America*를 매년 발간하여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코네티컷대학교의 로퍼여론연구소(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는 세계 각국의 여론조사업체와 제휴하여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을 교육하고 있지만 과학적 연구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구가 특정 지역의 현상을 다루고 있지만, 권위 있는 지역연구자로 활동하려면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론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독자들이, 특히 동료들이 ‘읽는’ 연구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또한 무질서하게 보이는 현상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설명하는 기술은 기본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은 앞으로 어떠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다루어도 과학적 지식의 창출이 연구의 기본 목표라면, 지역학의 독자를 확보하는 데도 효과적인 기술일 것이다.

IV. 결론

지역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과거 냉전시대에 지역연구가 국익이라는 상호배타적 이익을 추구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지역연구는 상호존중과 협력이 목표이자 존재이유다. 지역연구가 실용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학문적 이론 발전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든 지구촌 사회의 상호번영이란 가치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지역연구도 이러한 세계 표준을 예외 없이 존중해야 한다. 과거 선진국의 지역연구를 비판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연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 지역연구가 국수주의적 연구가 되지 않도록 세계 표준을 연구자의 연구윤리로 명심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독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연구는 생기를 가질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해외 지역연구는 습작 단계를 넘어섰다. 앞으로 생명력 있는 지역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독자이든, 실용적 독자이든, 학문적 독자이든 또는 외국의 독자이든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서 불후의 명작을 꼽으라면 제임스 위키(James W. Wilkie)의 *The Mexican Revolution: Federal Expenditure and Social Change since 1910*(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와 존 위맥(John Womack)의 *Zapata and the Mexican Revolution*(New York: Vintage, 1969)을 들 수 있다. 역사학자 위키는 위 저서를 발표할 당시 전통적 역사학 방법론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인근 학문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위맥은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을 사용했지만 독자들이 매료되었으며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 받지는 않았다. 이 저서들은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파헤쳤지만 독자들의 호감은 다 같이 높았다.

독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국제학술지나 저서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단계다.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연구도 보호단계에서 경쟁단계로 이전

하고 있다. 국제적 경쟁력의 확보는 지역학의 정체성이나 방법론에 대한 불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연구 환경 개선은 대학의 연구소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독자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연구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연구 인력에게는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일부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 자료 기관으로 성장해야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학문적 수요를 키우기 위해서는 잠재적 수요가 있는 실용적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투고일: 2012년 11월 12일 | 심사일: 2012년 12월 1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0일

참고문헌

- 곽재성. 2002.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동향과 발전과제.” 『국제지역연구』 6권 2호, 3-27.
- 김경일. 2009. “한국 사회와 지역연구의 방향성.” 『웹진 트랜스라틴』 7호(5월), 9-22. <http://translatin.snu.ac.kr/>(검색일: 2012. 10. 8).
- 김달용. 1989.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 관한 일고.” 『라틴아메리카연구』 2, 154-174.
- 김진기. 1994. “한국에서의 동북아 지역학과: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일본학과와 중국학과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12, 35-55.
- 나희량. 2012.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 학술지 분석 및 방향성 모색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2권 2호, 43-9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원. 2012. 『이베로아메리카』 1991-2012. <http://www.dbpia.co.kr/>(검색일: 2012. 10. 8).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2.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991-2012. <http://www.dbpia.co.kr/>(검색일: 2012. 10. 8).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2012. “연계전공 소개.” <http://spanish.snu.ac.kr/>(검색일:

2012. 10. 18).
- 서재만. 1998. “중동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 ·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세계지역학회. 2012. 『세계지역연구논총』 1991-2012. <http://www.dbpia.co.kr/>(검색일: 2012. 10. 8).
- 신윤환. 1998. “한국의 비교정치연구와 지역연구: 비판적 검토.” 이상섭 ·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463-465.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성형. 2009. “한국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트랜스라틴』 7호(5월), 33-49. <http://translatin.snu.ac.kr/>(검색일: 2012. 10. 8).
- 전성홍. 2002.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국가전략』 제8권 2호, 29-53.
- 전제성. 2009. “한국의 지역연구 조직화 및 후진양성 모델: 동남아연구의 사례.” 『웹진 트랜스라틴』 7호(5월), 23-32. <http://translatin.snu.ac.kr/>(검색일: 2012. 10. 8).
- 정해조. 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지중해지역연구』 9권 제1호(4월), 277-298.
- 조기숙. 1994.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정체성과 방법론.” 『세계지역연구논총』 12, 7-34.
- 최협. 1996. “지역사회연구의 인류학적 과제와 방법론적 쟁점.” 『정신문화연구』 19권 3호, 133-149.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12. 『라틴아메리카연구』 1988-2012. <http://www.dbpia.co.kr/>(검색일: 2012. 10. 8).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2. 『중남미연구』 1991-2012. <http://www.dbpia.co.kr/>(검색일: 2012. 10. 8).
-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2012. 『포르투갈-브라질연구』 2004-2012. <http://www.dbpia.co.kr/>(검색일: 2012. 10. 8).
- Lambert, Richard D. 1990. “Blurring the Disciplinary Boundaries: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3(6)(Jul/Aug), 712-732.
-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2012. *Constitution and By-Laws* (April).
- Wilkie, James W. 1967. *The Mexican Revolution: Federal Expenditure and Social Change since 1910*.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mack, John. 1969. *Zapata and the Mexican Revolution*. New York: Vintage.

Abstract

Issues and Trends in Latin American Studies in Korea

Uk Heon Hong Uiduk University

It is now generally agreed that Latin American studies have grown as a competitive field of study within Korea.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level of Latin American studies in the Korean academia to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This paper makes several suggestions. Firstly, Latin American research institutes, mainly those associated with universities, should build information networks with those in Latin America, so as to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to Korean businesses. Secondly, Latin American specialist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submit their research papers to internationally prestigious journals and get published, as well as to foster their students with rigorous scientific methodologies. Thirdly, the priority for research fundings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have published or are capable of publishing their work in such internationally prestigious journals.

Keywords | Latin American area studies, Latin American studies, area studies, Latin American studies in Korea

